

광주시 코로나 여파 각종 행사 줄줄이 취소·연기

무등산 개방·어린이 날 행사·어린이 안전체험관 개관 등 132건 국제그린카·뿌리산업전시회·가전&로봇박람회 개최 취소 검토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광주시의 행사 성 사업 등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1년 중 행사가 가장 많은 '가정의 달' 5월까지도 어린이날 축하행사 하나 없이 그냥 보내게 됐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 취소되거나 연기된 사업은 모두 132건에 이른다. 이 중 취소 또는 취소 예정인 사업은 34건으로 25.8%다. 특히, 가정의 달이자 5·18이 포함된 5월에 진행되는 주요 행사들 대부분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5·18과 관련한 28개 행사 중

5·18 전야제 등 9개 행사를 취소했으며, 기념식과 부활제 등 주요 9개 행사는 축소하기로 했다. 또 광주아시아포럼을 10월로 연기하는 등 10개 행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5월 주요 행사 중 하나인 어린이날 행사와 입양의 날 행사도 모두 취소했으며, 관련 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주 어린이의 안전교육을 책임질 어린이 안전체험관은 개소 일정을 코로나19가 잠잠해 질 때까지 늦추기로 했으며, 어린이 용품 등을 공유·대여해주

는 광주공유센터도 무기한 휴관 중이다.

광주시민의 연례 행사로 자리 잡은 봄철 무등산 개방행사는 취소됐으며, 가을철 정상 개방 행사도 불투명하다. 노사상생형 사업 중 하나인 노사한마음체육대회와 노사상생프로그램 사업들도 모두 취소됐다.

갈길 바쁜 AI(인공지능)관련 사업들도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사업은 코로나19사태 등이 겹치면서 토지매입비 등 추경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 상반기로 예정됐던 AI집적단지 사업설명회와 AI클러스터 포럼, AI집적단지 유치기업 인재채용 설명회 등은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방문이나 대면접촉이 필수적인 해외관련 사업도 모두 취소·연기됐다. 해외

선수단 전지 훈련 유치사업과 해외 도시 스포츠교류 사업 등을 비롯한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요 도시 시장단 초청행사, 해외유학생 유치 사업, 광주-샌디에고 교류 등이 취소 또는 하반기로 연기됐다.

광주시를 대표하는 국제전시회인 국제그린카전시회와 국제뿌리산업전시회 국제 IOT가전&로봇박람회 등은 아예 개최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행사성 사업은 모두 취소되고 있다"면서 "당분간 다중이 모이는 행사성 사업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시민과 관련자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역 인력·장비 활용률 90% 올해 1천억원 집행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경제에 보탬을 주기 위해 지역 인력과 장비 참여 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23일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착공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는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 사업은 시청, 월드컵경기장, 백운광장을 지나 광주역까지 약 17km 구간으로 본선, 정거장 20곳, 차량기지 1곳 등에 2023년까지 5685억원이 투입된다.

올해에만 673억원 공사 계약이 체결됐으며 상반기에 280억원을 추가로 집행된다. 착공 후 현재까지 투입된 연인원은 4497명으로 가운데 4342명이 지역 인력이다.

지역 장비는 1350여대를 활용해 지역 인력·장비 비율이 90%를 넘고 있다고 건설본부는 전했다. 건설본부는 지난해 12월 1단계 시공사 6곳과 광주 업체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개발연구원엔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2호선 건설사업이 광주에 2조 6000억원 생산·부가 가치, 1만8191명 고용, 1만9227명 취업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했다.

안덕현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장은 "도시철도2호선 공사가 코로나19 여파에도 순조롭게 추진됨에 따라 침체된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업체의 사업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와 장비사용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고품질 조사료 생산 전남도 913억 지원

전남도는 국내산 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총사업비 913억원을 투입, 축산농가와 조사료 경영체를 지원한다.

국내 최대 조사료 생산지인 전라남도도는 전국 조사료 재배면적의 35%인 4만9000ha를 재배해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고 있다.

전남도는 도내 조사료경영체(영농조합법인), 축산농가, 농작물 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올해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확충에 필요한 11개 사업에 총 91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588억 원을 비롯 기계·장비 구입 141억원, 종자구입 115억원, 퇴·액비 48억원, 품질관리 9억원 등이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는 자가 소비용은 t당 6만원씩 지원하며, 품질 등급제를 받은 유통 조사료는 등급별로 t당 4만2000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는 조사료경영체가 트랙터와 결속기, 랩피복기 등 장비 구입 시 수확면적 30ha 기준 1억5000만원을 지원하며, 노후장비 교체는 장비 구입 후 트랙터는 8년, 기타장비는 5년이 경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조사료 재배의 규모·집단화를 통한 생산 확대를 위해 조사료 생산전 문단지 1680ha를 추가 지정해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비롯 기계·장비, 종자·퇴액비 등을 일괄 지원하며, 국비 보조도 일반지역보다 10% 상향해 지원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왼쪽 네번째)이 23일 오후 광주시 동구 아이플러스광주에서 열린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전문기업 '솔트룩스 광주 AI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이사(왼쪽 다섯째), 임택 동구청장(왼쪽 여섯째) 등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솔트룩스, 광주 인공지능센터 문 열었다

AI·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업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전문기업인 ㈜솔트룩스가 23일 아이플러스광주에서 인공지능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광주시와 지난 3월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솔트룩스는 올 하반기 광주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솔트룩스는 기계학습과 자연어처리 및 빅데이터 분석 등 창업 후 20년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해 온 기업으로 매년 20% 이상 성장을 거듭

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국내 최대 특허를 보유한 업체로, 자체 보유한 영상과 음성, 이미지, 텍스트 등의 지식데이터베이스를 AI학습용 데이터로 개발 중이다.

이번 '솔트룩스 광주 AI센터' 설립은 AI분야 데이터의 생산과 전문인력 양성 등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창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공지능 중심도시로서 광주의 위상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는 "인공지능

산업은 지역간 경쟁이 아닌 전 세계가 경쟁하는 분야로, 인공지능을 선점한다면 어떤 도시든 세계적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솔트룩스 광주 AI센터 개소를 통해 세계 최고 인공지능 생태계가 광주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반을 조성해 다양한 AI 기업들이 광주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테크노파크 '연구개발 사업' 7년간 국비 597억 확보

전남테크노파크 내 전남연구개발지원단(정책기획단)이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R&D) 기획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2013년부터 7년간 국비만 597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도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등 3개 과제(사업비 300억원)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2~3년 내에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망하고 있다.

'지역수요맞춤형 R&D 기획지원'은 지역의 R&D 기획 추진체계 구축과 범부처 R&D 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참여하는 R&D 기획연구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7년간 총 60개의 기획연구회를 지

원해 이 중 30개 과제가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됐으며, 총사업비 1800억원 가운데 국비 597억원을 유치했다.

전남은 연구개발비 규모가 전국 14위(최근 3년)이며, 연구개발조직 및 연구인력 수도 전국 최하위 수준(전국 13위, 15위)으로 타 지역에 비해 R&D 현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전남테크노파크는 '지역수요맞춤형 R&D 기획 지원'을 통해 지역 연구개발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지역수요맞춤형 R&D 기획연구회를 통해 블루이코노미를 선도할 수 있는 신사업 발굴과 지역 혁신성장을 실현할 미래혁신전략 과제들을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관광재단 대표 이사 다음달 6일까지 공모

올 상반기 출범 예정

전남도는 올 상반기 출범 예정인 전남관광재단의 대표이사를 다음달 6일까지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대표이사는 관광재단 출범 시 재단 운영 및 업무 전반에 대해 총괄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며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다. 자격요건은 관광산업 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비롯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과 재단 자립경영 능력 등을 갖추고, 관광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선임연구원 이상 근무경력,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임원경력, 관련 기관·단체·기업의 임원경력 등

에 상응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접수는 다음달 6일까지 전남도 관광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로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대표이사추천위에서 서류·면접심사를 통해 복수 후보자를 전남도지사에게 추천하며, 후보자 중 전남도지사의 선임으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관광정책의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관광전담기구 설립을 위해 그동안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과 행정안전부 설립심의, 관련 조례 제정을 마쳤으며, 오는 5월 말 창립총회 개최 후 6월 중 설립 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함평천지 농·특산물

친환경 농업의 메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




